

日本统治时期蒙古军总司令部刊物

《铁壁》(Temür herem) 初考

娜仁格日勒(内蒙古大学)*

内容摘要: 通过对刊物《铁壁》(Temür herem)的初步考证,了解20世纪40年代内蒙古地区的内忧外患以及民族人士为民族复兴而奋斗的状况。在战乱年代,为了民族的存续,首先必须有强大的军队。该刊物正是为全面提高军队素质而创办的读物。

关键词: 《铁壁》(Temür herem), 日本统治时期, 蒙古军建设

序言

《铁壁》(Temür herem), 蒙汉合璧(图1, 图2), 蒙古军将校团铁壁编辑委员会编, 月刊, 发行地厚和(呼和浩特), 成纪736年(1941)11月20日, 大32开, 蒙文石印, 50页。汉文铅印, 包括版权页在内26页。蒙疆新闻社厚和印刷局印刷, 非卖品, 蒙古军总司令部发行。蒙文刊名题签蒙古自治邦政府主席德王。主编阿尔弼吉呼图¹。由蒙古军总司令李守信下令创办。版权页标注为成纪736年11月15日印刷, 成纪736年11月20日发行。笔者目前发现的只有创刊号。

创刊号蒙文和汉文封面均为照片, 是军队在战场上的情景(图1, 图2)。刊首有成吉思汗像、德王、李守信、小仓的照片(图3-5), 其次是创刊词(蒙汉, 乌古廷)、祝词(蒙汉, 堀彬)、首言(蒙汉, 宝音德勒格尔)。

关于刊物的名称, 卷首的创刊词、首言、祝词均有涉及。更为详细的解说是创刊号迹萍文章《为铁壁月刊敬告各关系读者》, 其指出, 为“建设新秩序, ……以军人之血军人之铁, 而作西北边防之墙壁也。”²由此可以看出, 刊名含义是“为建设新秩序, 军人充当西北边防墙壁”之意。

* 内蒙古大学外国语学院教授·東亜歴史文化研究所教授

元初都元帥塔海紺卜行跡考

張 岱 玉（內蒙古大學）*

內容摘要：窩闊台時期的征蜀主帥塔海紺卜是西夏人，他主導了1234年至1242年的蒙古征蜀戰爭，直到至元中期，仍見於滅宋戰爭的荊湖戰場。這樣一位重要的元初人物，卻沒有發現有關他的專傳、碑志、行狀，其他記載也很少。本文試圖勾稽元代文獻與碑刻，拼湊出塔海紺卜的歷史軌跡，讓一代名將不致於湮沒無聞。

關鍵詞：塔海紺卜；蒙宋戰爭；元代；西夏；南宋

塔海紺卜是西夏人，他是窩闊台汗時期蒙古征蜀戰爭的最高指揮官——都元帥。有關他的資料少而零散，筆者尚未見到有關他的專題研究。台灣李天鳴先生的煌煌大著《宋元戰史》中提到塔海是都元帥，但未注意此人，對塔海的籍貫未著墨，說“塔海紺卜”又名“塔海”。¹陳世松先生的《蒙古定蜀史稿》中有關於塔海紺卜的初步研究，指出他是征蜀的都元帥，以及“塔海紺卜”在幾種史料中的不同寫法。²湯開建先生的《黨項西夏史探微》中有《元代西夏人物表》³，其中亦未列入塔海紺卜。塔海紺卜投降蒙古後，他的行蹤主要見於蒙古征蜀戰爭期間。本文試圖通過勾稽元代文獻與碑刻，考察塔海紺卜在元初的活動。

一、西夏河南使塔哥甘普

1、塔海紺卜其人

《元史·太宗本紀》載，元太宗六年七月“遣達海紺卜征蜀。”⁴《元史》卷123《探馬赤傳》、《帖木兒不花傳》，卷149《耶律禿花傳》，卷150《李守賢傳》、《郝和尚拔

* 內蒙古大學 蒙古歷史學系，副教授

日本の民族分割離間政策の展開と雑居地域の旗県体制の変革 ——錦熱蒙旗の特別旗制施行と旗県複合制度の確立の政策過程分析——

胡 日 査*

キーワード：内モンゴル，日本，「満洲国」，旗県体制，錦熱蒙旗，特別旗制，
旗県複合制度

はじめに

日本は東部内モンゴルのジョソト（卓索図），ジョーウダ（昭烏達）両盟の蒙旗地域を侵略し，それを「満洲国」（以下，括弧を外して記す）の統治区域とするとともに，この蒙旗地域を純蒙地域と雑居地域に分類し，雑居地域とされた蒙旗地域を満洲国の熱河，錦州両省の区域に編入して支配した。日本はその各時期の統治政策に応じさせるため，雑居地域における旗県体制に対して多数の改編を行ったが，それが県政体制の実施と熱河蒙旗の放置¹，熱河蒙旗の再編と錦熱蒙旗の放置²，錦熱蒙旗の特別旗制施行と旗県複合制度の実施，旗県複合制度の廃止と旗制一元制度の実行という体制変革を経て展開された。本稿では，錦州，熱河両省の蒙旗地域における特別旗制の施行と旗県複合制度の確立の政策過程を分析する。

錦州，熱河両省の蒙旗地域における特別旗制の施行と旗県複合制度の実施について，佟佳江（1993：204），ポリジギン・セルゲレン（2002：100），広川佐保（2005：83，132-135），傅林祥（2007：606-609），金海（2009：80-81），孟和宝音（2010：143，148）らの研究において検討されている。本稿では，以上の研究を踏まえた上で，政策過程分析の視角から，錦熱蒙旗の特別旗制施行と旗県複合制度の確立の政策過程を詳細に研究し，これによって日本の雑居地域におけるモンゴル民族と漢民族に対する民族分割離間政策の展開とそれによる旗県体制の変革を明らかにする。

* 内蒙古大学

當下蒙古族祭祀文化外譯的理論探究

白 莉 莉（內蒙古大學）*

內容摘要：

文化外譯，顧名思義，實質就是文化學與翻譯學的交叉學問。自 20 世紀八九十年代以來，國內外學術界就出現了翻譯研究的文化轉向和文化研究的翻譯轉向。有學者在翻譯學領域探討文化交際問題；也有學者在文化學相關領域探討翻譯問題，由此產生了“文化翻譯”“翻譯文化”等新概念。到了 21 世紀，隨著世界各國文化、政治、經濟交往越來越頻繁密切，使得各國越來越重視跨文化交際。從文化交際的視角進行翻譯研究，始終是當前翻譯學術界的一個熱門話題。本文基於近幾年國內外文化外譯的相關研究成果，結合彰顯內蒙古區域文化特色及民族文化特色的蒙古族祭祀文化的發展現狀，理論層面探究當下蒙古族傳統文化外宣外譯的相關問題。

關鍵詞：蒙古族；祭祀文化；外譯；理論；研究

序言

爲了積極響應國家建設“文化強國”的政策，近年內蒙古正在全力建設民族文化強區，利用內蒙古豐富的民族文化資源，積極的推進民族文化“走出去”，深化民族文化國際交流，彰顯草原文化的自信與活力。文化外譯是在中華文化走出去時勢下，以高度的文化自覺與堅定的文化自信，對外傳播代表中華文化核心價值觀，以提升中國國際地位及國際話語權爲使命的概念。

1. 文化外譯研究現狀

近幾年在國內文化外譯相關研究中翻譯研究文化轉向的現象頗多。如徐珺在《漢文化經典外譯》（2014）中以中國服飾文化外譯為例探討了傳統文化的對外翻譯相關問題；羅

* 內蒙古大學外國語學院，講師，博士，研究方向爲比較民俗研究、文化翻譯與跨文化交際研究

晚清云南官员陈荣昌赴日考察实业农务活动的述评

—以《乙巳东游日记》为中心—

A Study on CHEN Rongchang of Yunnan Province Official Visit
to Japanese Industrial and Agricultural Activities in the Late Qing Dynasty
-- Focused on Diary of Visit to Japan in 1905.

何大勇*

摘要: 晚清云南官员陈荣昌撰写的《乙巳东游日记》，记录了他于清光绪三十一年（1905）在日期间的考察情况，具有较高的史料价值。本文将通过解读所载的考察实业农务记录，来揭示他对云南农林教育的独特贡献，不仅有助于我们了解和认识日本明治维新后日本科学文化对云南农林教育的影响，也有助于认识陈荣昌在促进云南科学文化发展上所起到的关键作用及所作出的贡献。

关键词：陈荣昌；日本农务实业；考察；晚清

一 序 论

清末各省官员大量前往日本进行各方面的考察，以图日本西学经验来改良清国。云南则是派出了教育官员晚清进士陈荣昌（1860-1935，字筱圃）赴日考察教育。1905年6月17日至9月17日作为云南教育机构高等学堂的总教习在日考察教育，并细致地观察日本社会。留下了访日笔记《乙巳东游日记》，于1906年在日本东京云南同乡会出版，翔鸾社印刷。陈荣昌的调查时间，恰逢明治维新的第38年，记录中涵盖有诸多的日本经验，值得整理与总结。这个笔记不仅能够为研究日本明治社会，提供一个重要的调查记录，而且日记内容也是反映出晚清为发展教育而效仿日本教育的记录，以尝试快速培养人材的第一手资料。为今天深化教育改革留下了诸多宝贵的经验和反思。本文关注陈荣昌学务的考察中，特别是有关农林业的考察部分，对云南农林业教育的发展产生了深度影响。此内容未见学者对其进行详细研究，本文将对其进行初步浅析。

陈荣昌在日的考察情况，于乃义早期对此进行了概述，对其著书《乙巳东游日记》进行了介绍。¹ 此后关于对陈荣昌的研究，主要分为三个方面，很多学者一是主要关注于他的文学诗歌研究，如骆小所对其的楹联研究（1991）。² 茶志高等关注于他的诗歌研究（2007），³ 陈友康展开的陈荣昌与日本人士的诗歌交流（2015）和民国社会文化转型期的诗歌样本（2015）研究等。⁴ 二是对其人物志研究，民国期间有方树梅撰《陈虚斋先生年

* 云南民族大学云南省民族研究所（民族学与历史学学院）研究员·东亚历史文化研究所教授

曲靖の「三輪山神話」探訪

百田 弥栄子*

はじめに

「三輪山神話」は日本の奈良時代の歴史書『古事記』にみえる、三輪山にまつわる神婚神話である。それには、

活玉依毘売イクタマヨリビメの元に夜ごと訪ね来る男があり、姫は身ごもる。男の素性を怪しんだ父母が姫に糸巻やしろに巻いた麻糸を針に通して男の衣の裾に刺させ、翌朝糸をたどってみれば三輪山の社オホモノヌシまで続いていた。男は大物主神であった。

という〈苧環おだまきの糸〉のモチーフが語られていることでも知られている。苧環とは麻糸を空洞の玉のように巻いたものをいう。

私は中国にこのモチーフをもつ伝承を求め、すでに20話を採集している。驚くことに、そのうち17が雲南省にあり、うち16が彝族イの伝承であった。そこで以前「彝族と彝族系の民族への集中が特徴的にみられる」と指摘したことだった（「中国の三輪山神話—蛇婿入譚と交叉して—」『説話・伝承学』2010年）。

そしてこのたび、雲南省の曲靖市を訪ねる機会を得たので、曲靖市の「三輪山神話」を〈苧環の糸〉のモチーフに注意して探ってみることにしたい。

曲靖市は雲南省昆明市の東120キロの所にあり、北東は貴州省、南東は広西壮族自治区に接している。滇東高原にあって標高は平均2000メートル。烏蒙山脈と梁王山脈がくねくねと縦断し、珠江の源流となる南盤江が広西区へゆうゆうと流れ下る。

曲靖は戦国には庄躡、三国には諸葛亮の軍隊が入ってきたように、古から雲南と中原を結ぶ交通の要衝だった。成都からチベットのラサを往来する南のシルクロードといわれる茶馬古道も、曲靖を経て陸良へ、昆明へと通じていた。

滇西てん（滇は雲南省の異称）に大理を中心として栄えた南詔王国があり、滇東には魏晋南北朝から唐の中葉のおよそ400余年間を統治した“南中の大姓”の一とされる爨氏さんがあった。爨氏は三皇五帝の一人である顓頊せんぎよくの子孫と自称しているように、中原からの

* 東アジア歴史文化研究所 教授

蒙政部派遣留學生の獣医畜産学専攻者養成の嚆矢と問題

横 田 素 子*

はじめに

満洲国における蒙政部の設置施行は公德元年（1934）12月1日であり、これは勅令第162号「国務院各部官制中改正ノ件」による興安総署の拡大に起因するものであった。従前、「国務院各部官制」は大同元年（1932）3月から施行され、9章67条で構成されたものであったが、「第9章文教部」に続いて「第10章蒙政部」の第68条から第74条までが追加された。該官制改正施行に伴い、昭和9年（1934）11月26日付「關參滿第三一四號ノ二」で関東軍参謀長から陸軍次官へ宛ての通牒¹に記載された「理由書」は以下のとおりであった。

對蒙古統治ノ要諦ハ清朝及中華民國ニ隸屬セル時代ノ外藩又ハ屬國的概念ヲ清算シ新國家建設ノ意識ト自覺トヲ明確ニ把握セシメ其ノ傳統及特異性ヲ尊重シツツ十分ナル指導訓練ヲ與ヘ以テ種族ノ康寧發展ヲ遂ケシメ將來滿漢人共ニ新國家ノ結成分子トシテ機會ノ均衡ヲ得セシムルニアリ然ルニ現在ノ蒙古統治ニ關スル行政機構ハ右ノ根本理念ニ基ク行政施行上極メテ不自然ナルノミナラス法制上ノ見地カラスルモ現行興安總署官制ニ基クトキハ現興安總署ト各部トノ權限關係ニ於テモ明確ヲ缺キ又行政上責任歸屬ノ點ニ於テモ行政ノ實體ニ適合セサルノ機構ナリト云ハサルヘカラス依テ現機構ヲ改正シ組織法上ノ部トナシ行政ノ責任ト主管權限ヲ明確ニスルト共ニ國內全蒙旗ノ行政ヲ統一シ以テ蒙古民族ヲシテ舊來ノ隸屬的觀念ヲ排除シ新國家結成分子タルノ自覺ヲ深メ民族協和ノ傘下ニ於テ新國家ノ建設ニ協力邁進セシメントスルモノナリ

このような趣旨の下、新たに加えられた蒙政部の職掌は「旗制ヲ施行する地域ニ於ケル地方行政」、つまり「警察、土木、衛生、農、林、畜産（馬ニ關スルコトハ除ク）、水産、鑛山、商工、教育及宗教ニ關スル事項ヲ掌理シ興安各省長ヲ監督ス」²のものであった。かつて、清朝皇帝下における「理藩院」、民国時代北京政權下における「蒙藏院」、

* 東アジア歴史文化研究所 教授・内蒙古大学 客員教授

- 조선시대 양로연의 의례와 의물 -

金 巨 富*

I. 序言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도 제도화 되지는 않았지만 양로연이 베풀어 졌던 것은 여러 기록에서 나타난다. 예나 지금이나 무병장수 인간이 꿈꾸는 지상 최고의 꿈이며 장수는 수(壽), 부(富), 강녕(康寧), 유희덕(攸好德), 고종명(考終命)의 오복의 첫째를 차지하였다.

조선시대의 양로연은 국가가 주관하여 노인의 장수를 축하하고 그들의 지위와 권위를 사회가 인정하고 그들의 삶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는 의미로서 성대하게 베풀었던 궁중잔치로 조선초기 세종(世宗)대에 시작하여 조선말기의 고종(高宗)대까지 이어져 왔다.

세종(世宗)은 “하늘이 다르니 기후가 다르고 기후가 다르니 농법이 달라야 하고, 먹는 것이 다르니 병이 다르고 병이 다르니 치료법 또한 달라야 한다” 하며, 조선은 중국과 다르다 라는 인식이었으나 동시대의 모든 신료, 선비들이 세종(世宗)과 같은 성리학을 공부했음에도 그들은 중국과 달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중국을 극복하고 자주적이고 독창적인 예악을 확립하기 위하여 1424년 박연을 악학 별좌로 임명한 후 음률과 악보를 정비하고, 악기와 율관제작의 거듭되는 실패와 좌절을 딛고 드디어 조선의 “황종음”을 찾고 조선의 땅에서 난 경석으로 편경을 만들고 편종을 주조하게 되었으며, 악기, 의물, 복식 등을 새로 만들고 신악인 《보태평》 《정대업》을 만들고 그에 어울리는 《일무》를 만들어 처음 선 보이는 자리가 세종15년(1433년)1월 1일 경복궁 근정전에서 열린 회례연이다.

이 회례연을 계기로 조선의 예악은 확립이 되었는데, 같은 해 8월 경복궁 근정전에서 열렸던 양로연에서 연희되었던 음악은 9작을 올렸던 회례연의 15곡 중 10개가 같았고, 정제는 회례연에서는 5작까지는 〈문무〉, 〈무무〉, 를 추고 6~9작에 〈몽금척〉, 〈오양선〉, 〈동동〉, 〈무고〉 추었다. 양로연에서는 1~5작에 〈문무〉, 〈무무〉, 〈오양선〉, 〈아박〉, 〈무고〉 를 추어 회례연의 〈몽금척〉, 〈오양선〉 이 빠지고 〈아박〉 이 추었다.

* 東アジア歴史文化研究所 教授, 傳統依例傳問監督 / 法古創新 代表

한국의 한복 온라인쇼핑몰 현황 파악을 통한 글로벌 마케팅전략 제시

이 병 화*

I. 들어가는 말

국내 온라인쇼핑몰은 1994년 인터넷 상용서비스가 시작되면서 태동기를 맞이하고 발전하여 성장기를 거쳐 안정적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국내 온라인쇼핑몰은 그동안의 인터넷관련 문제점을 보완하는 인터넷 법규의 제정과 관련규제를 강화하면서 안정적 기반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소자본으로 쉽게 창업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니 경영미숙과 직업윤리부재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대면이 아닌 이미지만으로 접하다 보니 이면을 볼 수 없어 생기는 문제점과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이견으로 생기는 반품, 교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특히 대형화된 마켓플레이스(market place)와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가 등장하면서 상품의 질과 가격비교는 물론 배송전쟁 및 고객센터까지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많은 고민을 만들어내고 있다. 즉, 판매자는 어디까지 고객을 만족시켜야 하며 이익을 어떻게 창출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었고 구매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매해야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며 남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다. 한복인터넷쇼핑몰은 2000년 초반(2003)에 태동하여 현재 마켓플레이스나 소셜커머스에 입점하여 판매하고 있지만 상품의 품질이나 판매방식에 있어서 이대로 지속가능 한가를 되짚어 보아야 할 시점이 되었다.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편리함과 부작용이 혼재한 현 상황에서 한복쇼핑몰의 위치는 어디까지 성장하였으며 현 실태는 어떠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한류의 바람이 전 세계로 불어서 K-드라마, K-문화, K-팝스타(뮤직), K-비빔밥이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전파되는 시류에 힘입어 한복이 K-문화와 함께 글로벌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한복온라인쇼핑몰의 현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점을 마련하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한복이 성장할 수 있는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온라인쇼핑몰의 현황자료를 토대로 실체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향 그리고 글로벌 성장을 촉진하는 융복합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종합몰과 전문몰로 시작한 대형온라인 쇼핑몰들도 현재는 마켓플레이스

* 한복산업센터장

매직레이스(Magic Lace) 技法을 活用한 戰服 디자인 研究

이 호 정(李 祐 姪)*

I. 序論

최근 한복의 다양한 아이템과 전통적인 형태, 색채, 소재, 문양 및 기법을 응용한 새로운 콘텐츠와 디자인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희소성의 가치가 강조되면서 디자인과 상품 개발에 있어 독창성이 살아있는 소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본 연구에서는 신소재 제작법 중의 하나인 매직레이스(Magic Lace) 기법에 주목하여 전통 한복에 접목시켜 새로운 스타일을 형성해 보고자 하였다. 매직레이스 기법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과 특징에 대한 설명은 II장에서 언급하겠지만, 이 기법은 1990년대 일본에서 레이스 제작법을 응용하여 개발한 신소재 제작 기법으로 2000년대 중반 한국에 소개되었다. 그 특징은 개개인의 독창적이고 자유로운 발상을 물에 녹는 알긴산 시트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이처럼 알긴산 수용성 시트를 활용하여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몇몇 대학교의 수업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매직레이스 기법을 활용한 디자인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소재들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작품에서 이 기법을 활용한 시도가 이미 여러 번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의 제작 과정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논문이나 저작은 미흡한 편이다. 기법이 개발된 일본에서조차 논문형식의 선행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나, 국내에서는 2000년대 중후반에 몇 편의 논문과 단행본이 간행되었다. 국내에서의 연구 현황을 들여다보면, 먼저 매직레이스 기법을 이용한 패션 아이템 개발에 관한 연구¹가 있으며 꽃살문 문양을 응용한 전통복식을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이 기법을 활용한 사례²가 있다. 또한, 매직레이스 기법에 대한 개괄서로 ‘매직레이스와 아트웨어’³라는 단행본이 발간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작품 작업은 시도되었으나 새로운 시도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기록물로서의 연구결과는 미흡한 편이기에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 반비류 중 ‘전복(戰服)’의 디자인 전개 및 제작에서 매직레이스 기법의 활용 가능성을 주목하였다. 우선 소재가 없거나 짧아 실용적인

* 成均館大學校 衣裳學科 招聘教授